

2022년 암호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후기

김현지

저는 2022년 암호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8기를 수료한 김현지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고 자기소개서까지 검토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은 암호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암호의 기초, KCMVP, 디지털 포렌식, 양자컴퓨터와 암호 등의 주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 후에 각자 실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서 제가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설명 후에 강사님들께서 직접 한명씩 친절하게 봐주셔서 재미있게 실습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이해했는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강사님들께서 계속 신경써주셔서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할 때는 실험에 필요한 장비나 툴 같은 것들도 다 지원을 해주셔서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 흥미를 조금 느낄 수 있었고 배경지식을 쌓아서 제 연구에 접목할 점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사이버안전훈련센터라는 곳에 가서 보안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같은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교육과정과 별개로 이런 양성과정이 유익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대전이다 보니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와야하고, 집에 갈 때도 택시를 타고 대전역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양성과정 측에서 회식 같은 행사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같이 택시를 타게 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낮을 많이 가려서 친구들을 못 사귄 줄 알았는데 양성과정에서 다른 대학원 분들도 알게 되었고 따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분야가 조금씩 달라서 신기했고 연구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지식이나 연구 관련 정보들도 알게 되고, 나중에 어떤 연구하고 싶은데 인연이 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친분이 아니라 연구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저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교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슬프게도 지금은 따로 교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성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기 좋은 환경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양성과정에도 저희 연구실 분이 꼭 뽑혀서 경험해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